

동성, 중국 접착제 공장 본격가동

베이징 올림픽 특수에 따른 매출증대 전망 ... R&D센터도 설립 예정

동성화학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廣東동성화학(Guangzhou Dongsung Chemical)이 2004년 4월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廣東동성화학은 스포츠 신발용 접착제나 신발재료를 생산하며 1만8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12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

동성화학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스포츠 품목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廣東동성화학의 매출이 4년 이내에 3배로 증가하고 중국 매출은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화학은 세계 고급 그레이드 PU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신발재료, 가죽, 자동차 시트, 접착제 그리고 골프 공 생산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성화학은 화학제품 구매 및 가공 시장이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중국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고 R&D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동성화학이 廣東을 플랜트 건설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Nike, Reebok, Adidas 등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R&D 센터를 타이완과 한국에서 중국 남부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과의 근접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廣東 플랜트 건설을 통해 동성화학은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9>